


# 유망진출산업 분석시리즈 (4) 콜롬비아

I. 경제현황 및 한-콜롬비아 경제협력 관계 .....	1
II. 국가개발계획 및 투자환경 .....	6
III. 유망진출산업 .....	14
1. 인프라 산업 .....	14
2. 석유 산업 .....	23
3. 광물 산업 .....	26
IV. 우리기업의 진출방안 .....	31



해외경제연구소 공식 모바일 앱  
• 최신 연구자료 실시간 업데이트  
•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해외경제정보'로 검색

확인 : 팀 장 이해경(6255-5707)  
hyekyung@koreaexim.go.kr  
작성 : 선임조사역 박대원(6255-5705)  
parkdw@koreaexim.go.kr  
조사역 이정애(6255-5712)  
aeleej@koreaexim.go.kr



# I. 경제현황 및 한-콜롬비아 경제협력 관계

## 1. 성장잠재력

### (1) 부존자원 풍부

- 콜롬비아는 2015년 기준 석탄 매장량 및 생산량 중남미 제1위, 원유 매장량과 생산량은 각각 중남미 제6위, 제4위를 차지하고 있는 등 비교적 부존자원이 풍부함.
- 또한 니켈, 금, 구리, 철광석, 보크사이트, 에메랄드 등 다양한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2) 비교적 큰 내수시장 보유

- 콜롬비아는 2016년 기준 인구가 49백만 명으로 중남미 제3위, GDP는 2,824억 달러로 중남미 제5위 규모로 비교적 큰 내수 시장을 보유하고 있음.
- 국토면적은 114만 km<sup>2</sup>로 중남미 제5위(한반도의 5배)이고, 국민의 평균 연령이 30세 미만으로 젊은 인구구조를 보유하고 있음.
-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경쟁력지수 (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2016-2017) 시장규모 부문에서 콜롬비아는 138개국 중 35위로 비교적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음.

### (3) 투자환경 비교적 양호

- 콜롬비아는 친시장 정책기조 등에 힘입어 기업경영여건 세계 제5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투자적격 신용등급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음.
- 세계은행에 따르면, 콜롬비아의 2017년 기업경영여건 종합순위(Ease of doing business ranking)는 190개국 중 53위,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멕시코 (47위)에 이어 두 번째로 타 중남미 국가 대비 비교적 양호한 수준임.
- 특히, 자금조달(세계 제2위), 소액 투자자 보호(13위), 사업청산(33위) 부문에서는 세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음.

- 콜롬비아는 OECD 4등급, 국제신용평가 3개사로부터 투자적격등급인 'BBB'를 부여받고 있어 비교적 양호한 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표 1.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4등급 (2016.10)	4등급 (2015.10)
S&P	BBB (2016. 2)	BBB (2013. 4)
Moody's	Baa2 (2016. 5)	Baa2 (2014. 7)
Fitch	BBB (2017. 3)	BBB (2016. 7)

자료: 각 평가기관 보고서 등.

- 또한 2016년 최대 반군단체인 좌익무장혁명군(FARC)과의 평화협정 체결로 치안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콜롬비아 정부의 OECD 가입 추진 등에 힘입어 투자환경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전망됨.
- 2014년 재선에 성공한 산토스 (Santos) 대통령은 2013년부터 OECD 가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금년중 가입을 기대하고 있음.

## 2. 경제현황 및 전망

### (1) 경제성장세 지속

- 콜롬비아 경제는 수출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원자재(원유, 석탄 등)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국제원자재 가격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
- IMF는 유가가 10달러 하락하는 경우 콜롬비아 경제성장률은 1%p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음.
- 2016년에는 유가 등 원자재 가격 하락, 원유 생산량 축소 등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2.0%에 그쳤으나, 남미 평균 마이너스 2.7% 대비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였음.
- 2017년에는 원자재가격 상승, 인프라 투자 증가, 금융완화 기조로의 전환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경제성장률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열악한 도로 인프라 개선을 위해 250억 달러 규모의 도로건설 프로젝트인 4세대 도로사업(4G Program)의 지속적인 실시에 따라 인프라 투자 확대가 예상됨.

그림 1. 콜롬비아-남미 경제성장률



자료: IMF.

## (2) 재정·경상수지 개선 전망

### □ 2017년 재정수지 적자 축소 예상

- 산토스 정부는 2011년 재정준칙 수립 등을 통해 적정한 재정수지 규모를 관리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바, 2014년까지는 양호한 재정 상황을 유지\*하여 왔음.

\* 연도별 GDP 대비 재정수지: 2012년 0.1% → 2013년 -0.9% → 2014년 -1.8%

- 2015년 및 2016년에는 저유가 기조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저성장으로 인한 세수 축소 등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3% 중반 수준(2015년 -3.5%, 2016년 -3.4%)으로 확대되었음.
- 2017년에는 유가 상승, 세계개혁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 등에 힘입어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전년 대비 축소된 2% 후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산토스 정부는 세수기반 확대를 위해 부가가치세 인상 (16%→19%) 및 과세대상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세계개혁의 실시 효과로 2017년 GDP 대비 0.8%에 달하는 재정수입 증가를 기대하고 있음.

### □ 경상수지 개선 지속

- 콜롬비아는 원자재 의존형 수출구조에 따라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과 해외 기업들의 과실송금 등으로 인한 소득수지 적자규모에 의해 경상수지가 결정됨.

**표 2. 콜롬비아 주요 수출품 현황<sup>주)</sup>**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sup>e</sup>	2017 <sup>f</sup>
원유 및 석유제품	32,483 (55.2)	28,927 (52.8)	14,239 (39.9)	10,959 (35.3)	14,205 (40.7)
석탄	6,688 (11.4)	6,810 (12.4)	4,560 (12.8)	3,908 (12.6)	4,321 (12.4)
커피	1,884 (3.2)	2,473 (4.5)	2,527 (7.1)	2,587 (8.3)	2,682 (7.7)
니켈	680 (1.2)	641 (1.2)	430 (1.2)	374 (1.2)	420 (1.2)

주: ( )안은 비중

자료: Economic Intelligence Unit(EIU).

- 2010년~2013년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상품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2014년부터는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상품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 다국적 기업들의 과실송금, 외채 원리금 상환 등으로 매년 100억 달러를 상회하는 대규모 소득수지 적자로 경상수지는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
- 최근 수년간 수출부진에 따른 상품수지 적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4~6% 수준으로 확대되었음.
- 2017년에도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원자재 가격 상승 및 폐소화 약세로 인한 가격 경쟁력 강화에 따른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적자규모는 3%대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2016년 7월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 등을 이유로 신용등급 전망을 'Negative'로 하향조정 했던 Fitch는 2017년 3월 경상수지 개선 등 거시경제 불균형 완화에 따라 등급전망을 'Stable'로 상향조정함.

**표 3. 콜롬비아 재정·경상수지**

단위: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sup>e</sup>	2017 <sup>f</sup>
재정수지/GDP	-0.9	-1.8	-3.5	-3.4	-2.8
경상수지/GDP	-3.3	-5.1	-6.4	-4.4	-3.6

자료: IMF.

### 3. 한-콜롬비아 경제협력 관계

#### (1) 교역현황

##### □ 2016년 7월 한-콜롬비아 FTA 발효

○ 2013년 우리나라-콜롬비아간 체결된 FTA가 2016년 7월에 발효\*됨에 따라 향후 양국간 교역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콜롬비아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칠레(2004년), 페루(2011년)에 이어 우리나라의 세 번째 FTA 체결국임.

- 콜롬비아는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중남미 지역 제8위 수출대상국이자 제6위 수입대상국으로, 교역규모는 13억 달러 수준임.
-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등이며, 수입품은 석탄, 커피, 동제품 등으로, 특히 콜롬비아는 우리나라의 세계 제2위 커피수입국임.

표 4. 한·콜롬비아 교역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3	2014	2015	2016	주요 품목
수 출	1,342	1,509	1,129	853	자동차,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등
수 입	207	608	323	433	석탄, 커피, 동제품 등
교역규모	1,549	2,117	1,452	1,286	-

자료: 한국무역협회.

#### (2) 투자현황

##### □ 우리나라의 對콜롬비아 투자는 활발하지 않은 수준

○ 2016년 12월말 누적 기준 우리나라의 對콜롬비아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총 51건, 3.3억 달러 수준으로 크지 않은바, 콜롬비아는 우리나라의 제60위 투자 대상국임.

-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9억 달러(전체의 57.6%),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이 0.6억 달러(18.2%), 도·소매업이 0.5억 달러(15.2%)를 차지하고 있음.
- 세부업종 중에서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이 총 투자액(3.3억 달러)의 55%(1.8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II. 국가개발계획 및 투자환경

### 1. 국가개발계획

- 2014년 산토스 정부는 향후 4년(2015년~2018년)간 인프라 개발 및 경쟁력 강화에 189조 페소 (945억 달러) 등 총 704조 페소(3,520억 달러)를 투자하는 국가개발계획을 발표함.
- 국가개발계획은 전반적인 국가 균형개발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투자분야는 ① 인프라 개발 및 경쟁력 강화, ② 사회적 이동성 증가, ③ 농촌 변혁, ④ 평화구축을 위한 안보 및 정의 실현, ⑤ 좋은 정부 구현, ⑥ 녹색성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특히 인프라 개발 및 경쟁력 강화 분야에 총 투자액의 27%를 배정하여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과 에너지/광물 개발 등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계획임.
  - 인프라 개발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한 세부 투자분야는 인프라 개발, 에너지/광물 개발, 통신망 구축, 제조업 육성, 과학기술개발 등임.
  - 이중 인프라 개발(63조 페소)과 에너지/광물 개발(78조 페소)에 총 141조 페소(707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임.

표 5. 콜롬비아 국가개발계획 분야별 투자규모

구 분	투자금액		비중(%)
	(조 페소)	(억 달러)	
인프라 개발 및 경쟁력 강화	189	945	26.8
사회적 이동성 증가	311	1,552	44.1
농촌 변혁	49	247	7.0
평화구축을 위한 안보 및 정의 실현	137	687	19.5
좋은 정부 구현	8	41	1.2
녹색성장	10	48	1.4
합 계	704	3,520	100.0

자료: 콜롬비아 국가기획처(DNP).

- 또한 민관협력사업(PPP)법 및 광물법 등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인프라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 정부재정이 투입되는 정부고시 PPP 사업\*의 정부부담 재원 최대 비율을 기존의 20%에서 30%로 PPP법 조항을 변경함.
  - 다만, 도로 인프라사업은 기존대로 최대 비율을 20%로 유지함.
    - \* 정부부처 또는 지방정부 주도로 민간 재원을 동원하여 추진하는 인프라개발 사업임. 타당성 분석 수행 후 재무부와 국가기획처의 검토를 거쳐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 추진 결정 후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함.
- 광물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광물부문 연간 임차료 인하, 광물 채굴기간 연장 허용, 국가전략광물을 개발하고자 함.
  - 채굴자가 계약서의 의무 규정을 준수한 경우, 채굴기간이 완료되기 최소 2년 전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콜롬비아 정부는 국가전략광물이 매장된 곳을 특수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질연구를 시행한 후 높은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선정하여 개발하고자 함.
- 산토스 정부는 국가개발계획 실행을 통해 국가도로망 및 철도망 확충, 도로 및 공항 유지·보수, 포장도로 확대, 화물운송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표 6. 국가개발계획에 따른 인프라 개발목표 (2014년 vs 2018년)**

구 분	2014	2018
양질의 국가도로망 비율	48%	62%
유지 및 보수 도로	0km	400km
포장도로	8,454km	8,680km
철도, 항공, 하천 화물운송량 (석탄 제외)	1.4백만 톤	2백만 톤
운영 철도망	628km	1,283km
건설 및 확장 공사 완료 공항 수	16개	33개

자료: 콜롬비아 국가기획처(DNP).



## 2. 외국인직접투자 (FDI) 유입 동향

- 콜롬비아는 중남미 제4위 FDI 유입국으로, 석유 및 광업 분야 등을 중심으로 연평균 150억 달러 수준의 FDI가 유입되고 있음.
- FDI 유입액은 2013년 162억 달러에 이어 정부의 인프라·에너지 투자 확대 정책 등에 힘입어 2014년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163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광업 부문 등에 대한 투자 위축으로 2015년에는 121억 달러로 감소하였으나, 2016년에는 136억 달러 수준을 기록하여 증가세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됨.

표 7. 중남미 국가별 FDI 유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국 가	2011	2012	2013	2014	2015	
					금액	증감(%)
브라질	101,158	86,607	69,181	96,895	75,075	-23
멕시코	23,649	20,437	45,855	25,675	30,285	18
칠레	23,309	28,493	19,362	22,342	20,457	-8
콜롬비아	14,648	15,039	16,209	16,325	12,108	-26
아르헨티나	10,840	15,324	9,822	5,065	11,655	130
페루	7,665	11,918	9,298	7,885	6,861	-13
파나마	3,132	2,980	3,943	4,309	5,039	17
코스타리카	2,733	2,696	3,555	3,064	3,094	1
도미니카공화국	2,277	3,142	1,981	2,209	2,222	1
우루과이	2,504	2,536	3,032	2,188	1,647	-25
베네수엘라	5,740	5,973	2,680	320	1,383	153
트리니다드토바고	1,831	2,453	1,995	2,488	1,214	-105
과테말라	1,026	1,244	1,295	1,389	1,209	-13
온두라스	1,014	1,059	1,060	1,144	1,204	5
에콰도르	644	567	727	773	1,060	37
중남미 전체	207,831	206,660	195,782	198,133	179,100	-9

자료: UN 중남미경제위원회(ECLAC).

### 3. 투자환경

#### (1) 투자정책

##### □ 내·외국인 동등대우 및 특정 산업을 제외한 전 분야 개방

- 1991년 제정된 외국인투자법(Law 9)은 내·외국인 동등대우 보장, 국방·핵폐기물 처리사업 등을 제외한 모든 산업분야 개방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산업에서 100% 외국인 소유를 허용함.
- 다만, 방송통신업의 경우 외국인 지분율을 40%로 제한하고 있으며, 보험, 금융업, 광업 등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의 사전허가가 요구됨.

##### □ 친시장 정책 기조를 통해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

- 우리베 (Uribe) 전임 대통령(2002~2010년)은 투자자안정법(Law of Legal Stability)을 통해 법인설립 및 수출입절차 간소화, 공공조달 투명성 강화 등의 친시장 정책을 시행함.
- 후임 산토스 현 대통령(2010년~현재)도 외국인투자자 포트폴리오 투자 소득세를 기존 33%에서 14%로 인하(2013년)하는 등 전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여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2) 분야별 투자여건

##### □ (외환제도) 외환시장 자율화 기조 유지

-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는 중앙은행에 등록되어야 하며, 등록된 외국인 투자자는 수익의 해외송금 및 재투자, 자산 매각 등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음.
- 2000년 해외송금 한도 폐지, 2008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최소 투자기간 (2년) 및 포트폴리오 투자 예치요건 (투자자금의 50%) 철폐 등 외환시장 자율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
- 달러화 대비 폐소화 가치는 유가하락, 달러화 강세 등으로 하락세가 지속\*되어 왔으며, 특히 2015년에는 달러당 2,742폐소를 기록하여 환율이 급등하기도 하였음.

\* 달러당 폐소 환율 추이: 2013년 1,869 → 2014년 2,001 → 2015년 2,742 → 2016년 3,055

□ (조세제도) 법인세율은 최대 40%로 높은 수준

- 콜롬비아는 2017년부터 新조세제도를 시행하게 됨에 따라 2017년 법인세율은 최대 40%, 2018년은 최대 37%, 2019년부터는 33%임.
- 이익이 8억 페소(27만 달러 상당)를 초과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2017년에는 6%, 2018년에는 4%의 세율을 가산함.

**표 8. 新조세제도 시행에 따른 법인세율**

연 도	최대 법인세율	상세 내역
2017년	40%	법인세 34% + 가산세 6%
2018년	37%	법인세 33% + 가산세 4%
2019년	33%	법인세 33% (가산세 없음)

자료: KPMG International.

- 다만, 전국 8개 자유무역지대 입주기업들은 20%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음.
-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경쟁력지수에 따르면 콜롬비아의 높은 세율이 기업경영의 제3대 장애요인으로 지목됨.
- 한편, 우리나라-콜롬비아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이 2010년 7월 체결되어 2014년 7월 발효되었으며, 이 협정은 부동산 소득, 사업 이윤, 국제운수소득, 배당, 이자, 양도소득 등에 포괄적으로 적용됨.

□ (금융제도) 콜롬비아의 세계은행 2017년 기업경영여건 자금조달 (Getting Credit) 부문 순위는 뉴질랜드에 이어 세계 제2위

- 콜롬비아는 동산담보법 유무 및 내용, 신용정보시스템 구축 정도 등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3년 연속 (2015년~2017년) 자금조달 부문 세계 제2위를 유지하고 있음.
- 콜롬비아 중앙은행은 물가관리를 위해 2016년 7월 7.75%로 기준금리 인상(25bps)을 단행하였으나, 경제성장 회복을 위해 2016년 12월 4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인하(25bps 인하, 기준금리 7.5%)를 실시함.
- 또한 2017년 2월 및 3월에 각각 25bps씩 추가 인하함에 따라 현재 기준금리는 7.0%로, 2016년 12월 이후 금융완화 기조가 지속되고 있음.

□ **(노동제도)** 숙련노동자 및 젊은 인력이 비교적 풍부한 편이나, 현지인 의무고용 필요

-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경쟁력지수에 따르면, 콜롬비아의 중등교육 등록률은 98.8%, 고등교육등록률은 51.3%로 각각 세계 56위 수준으로 비교적 숙련노동자가 풍부한 편임.
- 종업원 10명 이상 사업체는 비숙련 노동자의 90%, 숙련 노동자의 80% 이상을 콜롬비아 국적자로 고용하여야 함.
- 노조 지도부 등 법적으로 고용을 보장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고가 가능하나, 부당한 해고에 대한 사업주의 배상책임은 높은 수준임.
- 필수 공공서비스 부문 종사자를 제외한 노동자의 파업은 보장되나, 실업률 상승 (2015년 8.9% → 2016년 9.7%) 등으로 최근 파업이 감소 추세이며, 결근이나 이직이 비교적 적은 편임.

□ **(무역제도)** 적극적인 FTA 체결 추진 지속

- 콜롬비아는 EU, 미국, 캐나다, 태평양동맹 회원국 (멕시코, 페루, 칠레), 한국 등 주요 선진국 및 중남미, 아시아 국가와의 적극적인 FTA 체결을 통해 교역 확대를 도모하고 있음.
  -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은 2012년 7월에 결성되었으며, 콜롬비아, 멕시코, 칠레, 페루 등 4개국이 참여하는 경제협력체임.
- 콜롬비아는 안데안공동체 (Comunidad Andina de Naciones: CAN) 회원국으로 비CAN 국가에 대해서는 공동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 원부자재(0~5%), 제조품(10%), 소비재(15~20%), 자동차(35%), 농산물(최대 100%) 등
  - 안데스공동체는 1969년에 설립된 경제협력체로,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에콰도르가 회원국임.

### (3) 반군과의 평화협정 체결

- 최대 반군단체인 FARC와 평화협정 체결에 따른 치안 개선으로 투자환경이 향상되고, 반군 점령 농촌지역에 대한 투자확대가 전망됨.

- 산토스 정부는 치안불안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반군문제 해결을 정책 최우선순위로 추진한 결과 2016년 FARC와 평화협정 체결 및 이행을 위한 제반 절차(의회 승인 및 헌재 합헌 판결)를 완료함.
  - 산토스 정부는 정부-반군간 52년 동안 지속된 내전을 종식시키기 위해 2012년부터 FARC와의 평화협상을 진행하여 왔음.
  - 2016년 11월 24일 FARC와 평화협정 개정안에 대한 서명식을 개최하고, 2016년 11월 30일 콜롬비아 의회가 평화협정 개정안에 대해 동의하였으며,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는 평화협정 개정안을 합헌으로 판결함.
- 반군의 무장해제 등 평화협정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 콜롬비아의 치안상황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FARC는 송유관, 도로 및 교량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대부분의 테러공격을 자행하여 왔음.
  - 특히 송유관 테러공격으로 원유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았던바, 테러공격 감소로 원활한 원유생산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FARC가 점령했던 농촌지역에 대해 도로, 관개, 전력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인프라 개발 및 투자가 예상됨.
- 한편, 산토스 정부는 2017년 2월 또 다른 좌익반군단체인 민족해방군(ELN)과 평화협상을 시작하였으며, FARC와의 평화협상 경험을 바탕으로 ELN과도 단기간에 평화협상을 완료하기를 기대하고 있음.

#### (4) 기업경영여건 및 글로벌경쟁력지수 순위

- 콜롬비아의 2017년 기업경영여건 종합순위는 190개국 중 53위로 전년 54위 대비 한 단계 상승하였음.
- 2016-2017년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경쟁력지수 종합순위는 138개국 중 61위로 전년대비 동등하며, 2014-2015년 66위 대비 5단계 상향된 순위를 유지함.
- 특히, 거시경제안정성(53위), 금융시장 발전수준(25위), 시장규모(35위) 등에서 비교적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음.

-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칠레(33위), 파나마(42위), 멕시코(51위), 코스타리카(54위)에 이어 5위를 기록하고 있음.

**표 9. 콜롬비아 기업경영여건 순위**

구분		2015	2016	2017
콜롬비아 순위 / 전체 국가수		34/189	54/189	53/190
1	창업(Starting a Business)	84/189	84/189	61/190
2	건축인허가(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	61/189	38/189	34/190
3	전기공급(Getting Electricity)	92/189	69/189	74/190
4	재산권등록(Registering Property)	42/189	54/189	53/190
5	자금조달(Getting Credit)	2/189	2/189	2/190
6	소액투자자 보호(Protecting Minority Investors)	10/189	14/189	13/190
7	세금납부(Paying Taxes)	146/189	136/189	139/190
8	수출입절차(Trading Across Borders)	93/189	110/189	121/190
9	법적분쟁해결(Enforcing Contracts)	168/189	180/189	174/190
10	사업청산(Resolving Insolvency)	30/189	30/189	33/190

자료: 세계은행.

**표 10. 콜롬비아 글로벌경쟁력지수 순위**

구분		2014/2015	2015/2016	2016/2017
콜롬비아 순위 / 전체 국가수		66/144	61/140	61/138
1	제도(정책, 시스템)	111/144	114/140	112/138
2	인프라스트럭처	84/144	84/140	84/138
3	거시경제안정성	29/144	32/140	53/138
4	보건·교육	105/144	97/140	90/138
5	인력관리(연수)	69/144	70/140	70/138
6	상품시장 효율성	109/144	108/140	100/138
7	노동시장 효율성	84/144	86/140	81/138
8	금융시장 발전수준	70/144	25/140	25/138
9	기술수준	68/144	70/140	64/138
10	시장규모	32/144	36/140	35/138
11	기업 발전수준	62/144	59/140	59/138
12	혁신	77/144	76/140	79/138

자료: 세계경제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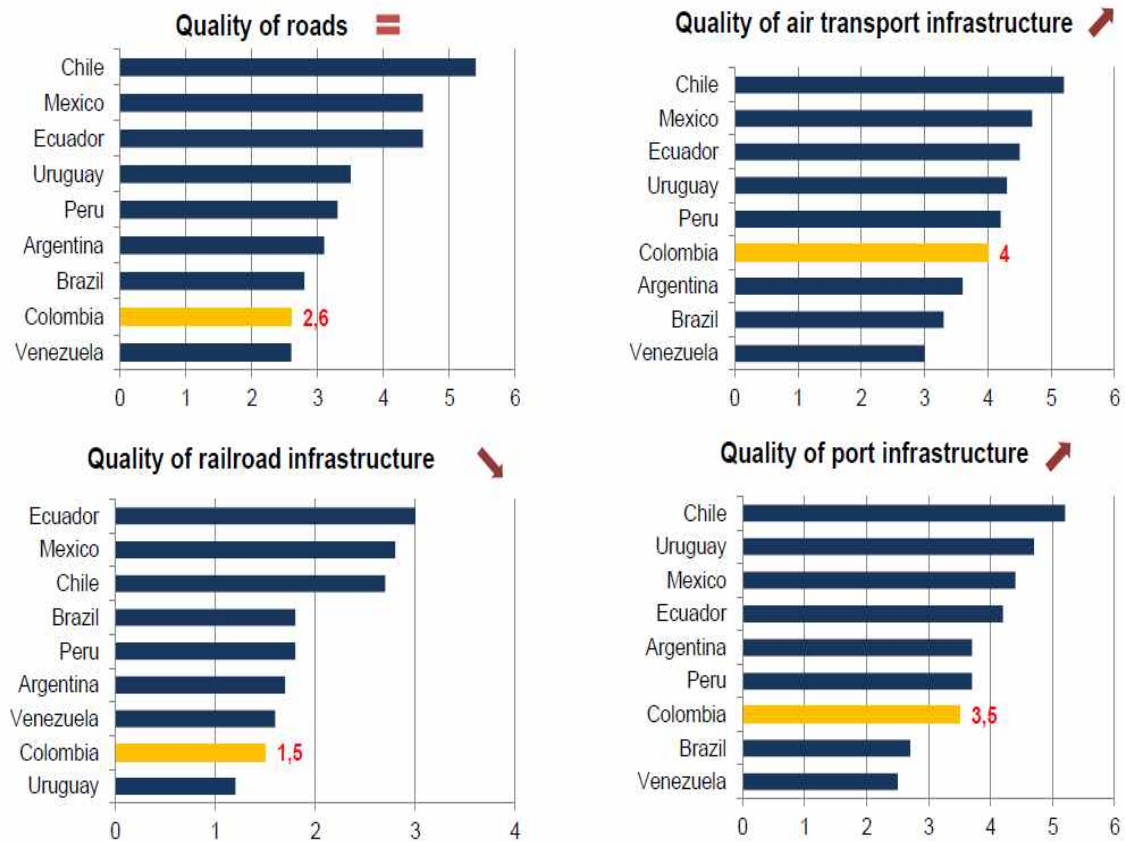
### III. 유망진출산업

#### 1. 인프라산업

##### (1) 현황 및 전망

- (열악한 인프라 수준)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경쟁력지수에 따르면 콜롬비아는 인프라 투자 부족으로 세계 인프라 순위가 84위,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10위에 그치고 있으며, 열악한 인프라가 콜롬비아 기업경영 3대 장애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음.
- 특히 콜롬비아는 도로, 철도 등 교통인프라가 미비하여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경쟁력지수 (2016-2017) 교통인프라 부문 세부 항목별 순위는 138개국 중 도로 120위, 철도 104위 등임.

〈그림 2〉 콜롬비아의 인프라 수준 평가<sup>주)</sup>



주: 1 = extremely underdeveloped, 7 = extensive and efficient by international standards  
 자료: 세계경제포럼.

□ (산업규모) 4세대 도로사업(4G Program)을 중심으로 콜롬비아의 2016년 인프라산업 규모는 2015년 대비 6.1% 증가한 40.9조 페소(136억 달러)이며, 2017년에는 전년 대비 6.3% 증가한 45.3조 페소(151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표 11. 연도별 인프라산업 규모

단위: 조 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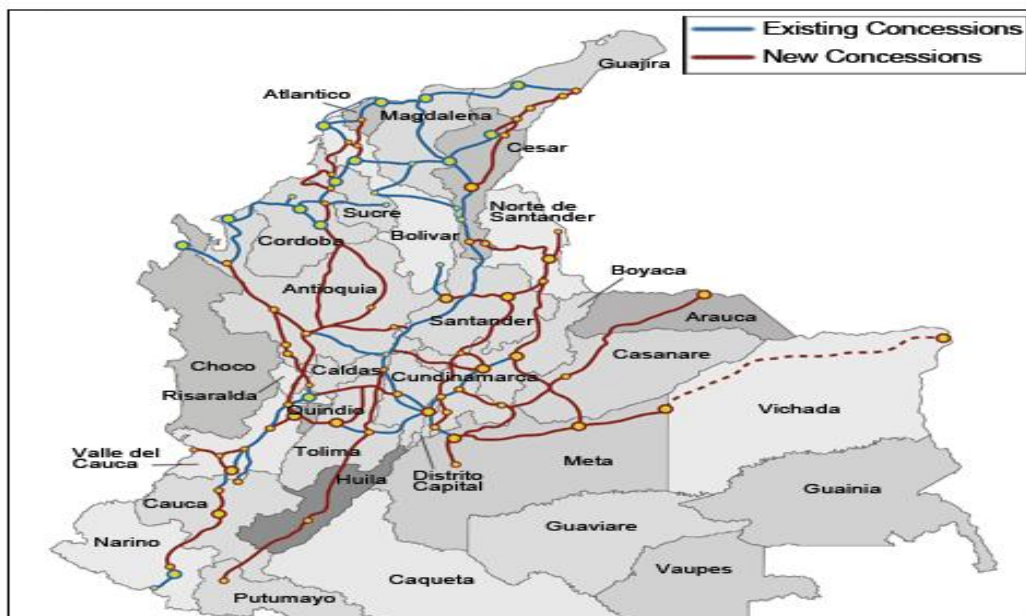
구분	2015	2016 <sup>e</sup>	2017 <sup>f</sup>	2018 <sup>f</sup>	2019 <sup>f</sup>	2020 <sup>f</sup>	2021 <sup>f</sup>
금액	36.4	40.9	45.3	49.8	54.4	58.6	62.8
성장률(%)	2.2	6.1	6.3	6.1	5.7	4.5	4.3

자료: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4G Program 개요

- 4G Program은 열악한 도로 인프라 개선을 위해 콜롬비아 정부가 2014년부터 추진중인 250억 달러 규모의 도로 건설 프로젝트임.
- 제1차 10개 프로젝트 및 제2차 9개 프로젝트는 이미 입찰을 통한 낙찰기업 선정이 완료되어 건설 등이 진행중이며, 제3차는 19개 프로젝트가 추진중임.
  - 제1차: 10개 프로젝트 (사업규모: 71억 달러, 총길이: 1,276km)
  - 제2차: 9개 프로젝트 (사업규모: 55억 달러, 총길이: 1,771km)
  - 제3차: 19개 프로젝트 (사업규모: 116억 달러, 총길이: 2,429km)
- 콜롬비아 정부는 4G Program 실시에 따라 건설기간 동안 1.5%p, 운영기간 중 1.0%p의 GDP 증가와 실업률 1%p 감소 등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그림 3. Colombia- Existing & New 4G Concessions



자료: 콜롬비아 인프라청 (ANI).



표 12. 콜롬비아 인프라산업에 대한 SWOT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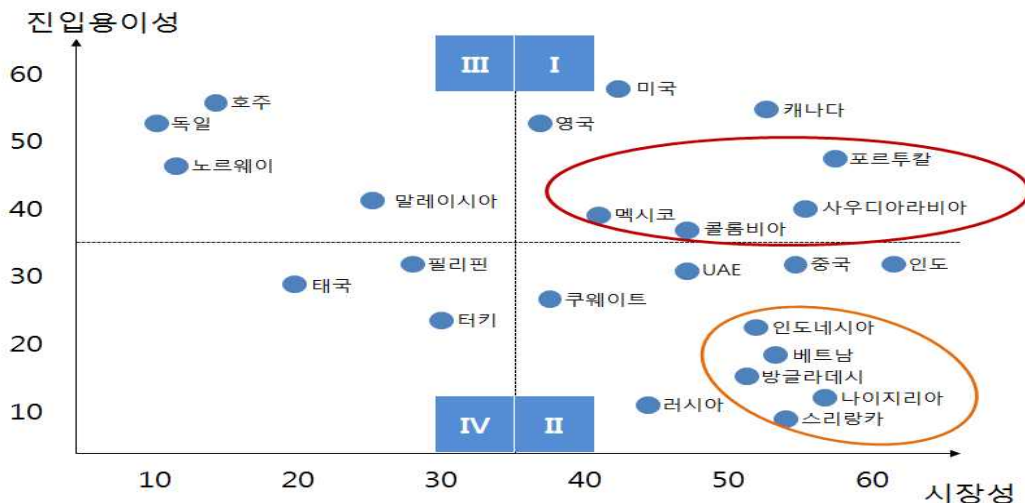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업이 향후 경제성장을 견인할 분야 중 하나 (연평균 4.6% 성장 전망, '17년~'25년)</li> <li>○ PPP 방식을 적극 활용한 인프라사업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속한 사업진행 노력에도 불구하고, 빈번한 사업지연 발생</li> <li>○ 사업추진시 부정부패에 대한 우려</li> </ul>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치안정 및 친시장 정부 정책 지속</li> <li>○ 적극적인 FTA 추진을 통한 무역확대 정책으로 향후 인프라개발 촉진 기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의 긴축재정 정책 기조 지속</li> <li>○ 향후 유가 하락시 정부의 인프라 투자 여력 약화</li> </ul>

자료: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 (양호한 인프라산업 환경) BMI의 2016년 인프라 위험/보상 지수(Infrastructure Risk/Reward Index)에 따르면, 콜롬비아는 높은 성장잠재력과 비즈니스 환경 개선 등에 힘입어 중남미 국가 중 제2위를 차지함.

- 콜롬비아는 노동시장 및 시장경쟁력, 입찰 투명성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 또한 콜롬비아는 성장성과 진입용이성 측면에서 해외건설 진출 유망국가로 평가됨(한국수출입은행).
  - 성장성 평가 기준은 시장 규모, 시장 성장률, 경제성장률이며, 진입 용이성의 기준은 국가 안정성, 제도적 환경, 건설사업 환경 등임.

그림 4. 해외건설 진출 유망시장 선정 결과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PPP 방식이 주도) 콜롬비아 정부는 최근 수년간 원자재 가격 하락과 재정수지 적자 지속 등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관협력사업 (PPP)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 건설중인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의 43%, 낙찰 또는 금융종결 프로젝트의 84%가 PPP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정부 재원조달 보다는 PPP 방식으로 인프라 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 (인프라청 설립) 콜롬비아의 인프라개발은 4G Program 추진 등을 담당하고 있는 인프라청이 주도하고 있음.
  - 인프라청(Agencia Nacional de Infraestructura: ANI)은 2011년 설립된 교통부 산하 기관으로, 인프라개발 관련 콜롬비아 정부 부처와 민간 부문 간 코디네이터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PPP법 및 관련조직 >

- (PPP법) 콜롬비아는 2012년 PPP법(Law 1508)을 개정하여 PPP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정비함.
  - 개정 PPP법은 PPP 사업의 대상범위를 도로 등 경제인프라 뿐만 아니라 학교, 병원 등 사회인프라 부문으로 확대하여 민간자본의 참여 증진을 도모
  - 그러나 사업위험의 상당부분을 민간으로 이전하였는바, 정부의 위험부담은 20% 이내로 제한
    - 건설비 초과 위험, 수요 추정 위험, 토지 수용 위험 등을 민간이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정부보조금 지급도 인프라 시설이 완공된 이후로 제한
    - 사업기간은 최대 30년으로 제한하고 사업기간 연장도 최초 기간의 20% 이내로 한정하는 한편, 정부보조금 증가도 최초 추정액의 20% 이내로 한정
- (PPP 관련조직) PPP 관련기관은 국가기획처(DNP), 재무부(MHCP), 국가개발금융공사(FDN), 교통부(MOT), 도로관리청(INVIAS), 인프라청(ANI) 등임.
  - 국가기획처(DNP): 국가 정책 및 공공 투자와 연관된 모든 활동에 대해 관련 부처를 조정하는 기관으로서, 국가개발계획 수립을 담당
  - 재무부(MHCP): PPP 사업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위험 배분 및 정부 보조금을 정부예산에 반영하는 역할 등을 수행
  - 국가개발금융공사(FDN): 주요 PPP 인프라 사업에 대한 초기 금융 구조화 담당
  - 교통부(MOT): 교통 정책 수립과 집행을 담당하며, 산하기관으로 정부재정에 의한 도로 투자사업을 담당하는 도로관리청(INVIAS)과 민간이 참여하는 PPP 방식 도로 투자사업을 담당하는 인프라청(ANI) 등을 두고 있음.

- (교통인프라 중심) 콜롬비아 인프라산업은 현재까지 4G Program 등 교통인프라가 주도하고 있으며, 최근 콜롬비아 정부는 포스트 4G 교통 인프라 계획을 발표하였는바, 향후에도 도로, 다리 등 교통 중심의 인프라 개발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2015년 11월 향후 20년(2015년~2035년)간 208조 페소(680억 달러) 규모의 교통인프라 마스터플랜(20-year integrated transport plan)을 발표함.
  - 상기 마스터플랜을 통해 도로, 공항, 항구, 철도 등의 인프라를 개발하여 지역통합, 무역확대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 또한 2016년 11월에는 포스트-4G 교통인프라 계획(post-4G transport infrastructure plan)을 발표하였음.
  - 총 65개 사업, 49.4조 페소(156억 달러)를 교통인프라에 투자하는 계획임.
- 이러한 콜롬비아 정부의 투자계획 등에 힘입어 교통인프라 산업은 2017년~2021년 동안 연평균 5.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표 13. 교통 인프라산업 성장률(%)

구 분	2015	2016 <sup>e</sup>	2017 <sup>f</sup>	2018 <sup>f</sup>	2019 <sup>f</sup>	2020 <sup>f</sup>	2021 <sup>f</sup>
교통인프라	2.1	7.1	7.0	6.4	6.6	4.9	4.7
도로	3.5	9.2	8.5	7.4	7.7	5.6	5.4
철도	-4.6	1.6	3.3	4.0	3.0	2.8	2.4
공항	3.0	1.2	2.3	2.7	2.5	2.3	2.0
항구	4.0	-0.3	0.5	1.6	1.6	1.9	2.0

자료: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 (도로 분야에 집중) 교통인프라 중에서는 4G Program 등에 힘입어 도로분야가 전체의 70~8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5. 교통인프라 분야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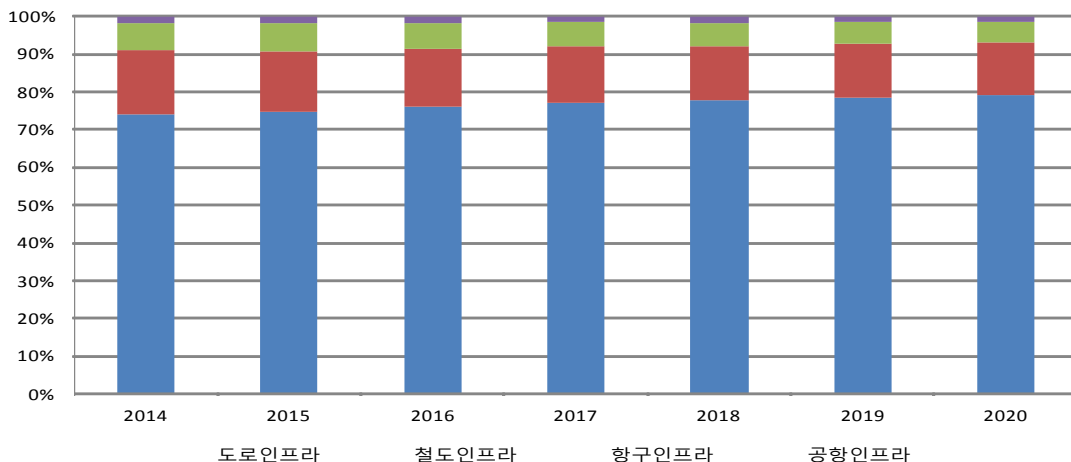


표 14. 교통인프라 분야별 규모

단위: 조 페소

구 분	2014	2015	2016 <sup>e</sup>	2017 <sup>f</sup>	2018 <sup>f</sup>	2019 <sup>f</sup>	2020 <sup>f</sup>
도로인프라	18.4	20.0	23.1	26.1	29.0	32.3	35.1
철도인프라	4.3	4.3	4.7	5.0	5.4	5.8	6.1
공항인프라	0.4	0.5	0.5	0.5	0.6	0.6	0.6
항구인프라	1.8	2.0	2.1	2.2	2.3	2.4	2.5

자료: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 (교통인프라법 제정) 콜롬비아는 신속한 교통인프라 사업 진행을 위해 2014년 교통인프라법(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Law)을 제정함.
  - 교통인프라법 제정 이전 53개 교통인프라 추진사업 중 환경허가(53개 사업의 80%), 지역주민과의 사전협의(27%), 토지보상(23%) 문제 등으로 사업지연이 초래됨.
  - 이에 기존 교통인프라의 유지·보수 사업은 환경허가 절차 생략, 입찰 이전 지역주민과의 사전협의 완료 의무화, 토지보상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규정한 교통인프라법 제정을 통해 사업 활성화를 도모함.

## (2) 기업 진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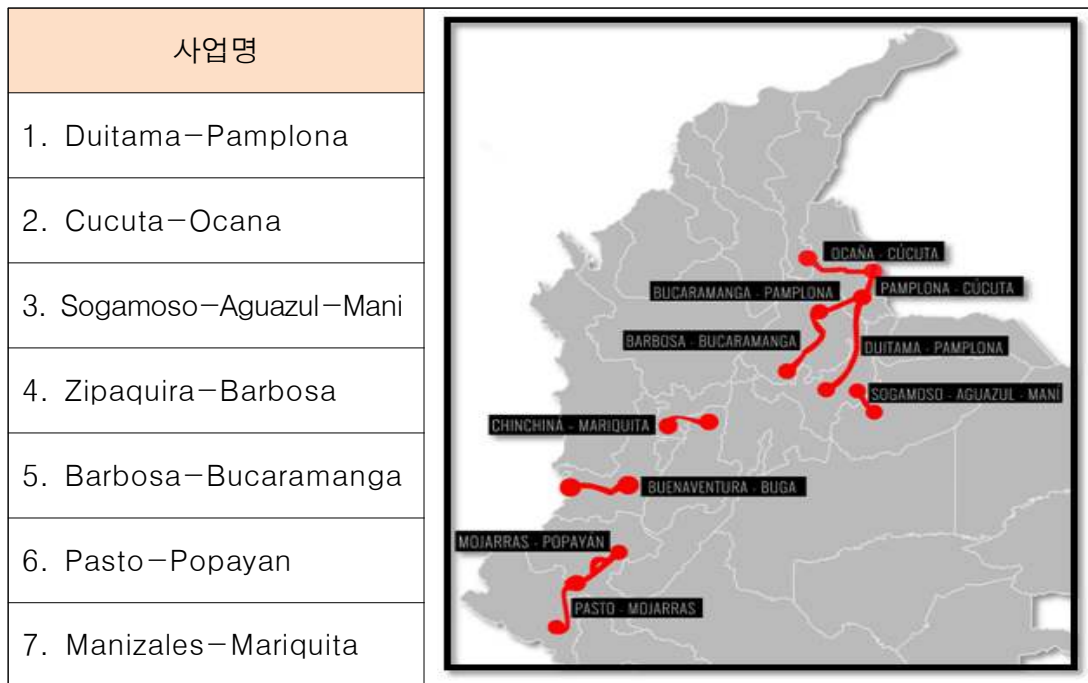
- (타국기업) 콜롬비아 인프라산업에 진출한 주요 해외 기업으로는 Iridium(스페인), Strabag(오스트리아), Shikun&Binui(이스라엘), CHEC(중국) 등이 있음.
  - Iridium은 2014년 4G Program에서 2개 도로사업(총길이 78km)을, Strabag은 총길이 140km (신규 75km, 기존 65km 현대화) 고속도로 사업을 수주함.
  - Shikun&Binui은 총길이 153km에 달하는 쿤디나마르카 동부 도로사업을 수주하였고, CHEC는 총길이 246km에 달하는 Mar 2 고속도로를 건설할 예정임.
  - 기타 해외기업으로는 Ansaldo Energia SpA, Bauer AG, China Communications Construction Group, Acciona, VINCI 등이 있음.
  - (현지기업) 콜롬비아 인프라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현지기업은 Concreto, Grupo Argos, Grupo Odinsa, Conciviles 등임.

- 콜롬비아 도로 분야에는 유럽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 및 중남미 (브라질, 코스타리카, 멕시코 등)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으며, 이들 기업들은 기존 진출기반 및 콜롬비아 현지 기업들과의 탄탄한 협력관계 등에 힘입어 향후에도 진출이 활발할 것으로 전망됨.
- (우리기업) 우리기업의 인프라 부문에 대한 진출은 현재까지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

**(3) 주요 추진 예정 인프라 프로젝트 현황**

- (도로사업) 주요 추진 예정사업으로는 4G Program 제3차 7개 사업 (사업규모 28억 달러) 등이 있으며, 이들 사업들은 사업 구조화 작업은 완료되었으나, 재원조달이 미정인 상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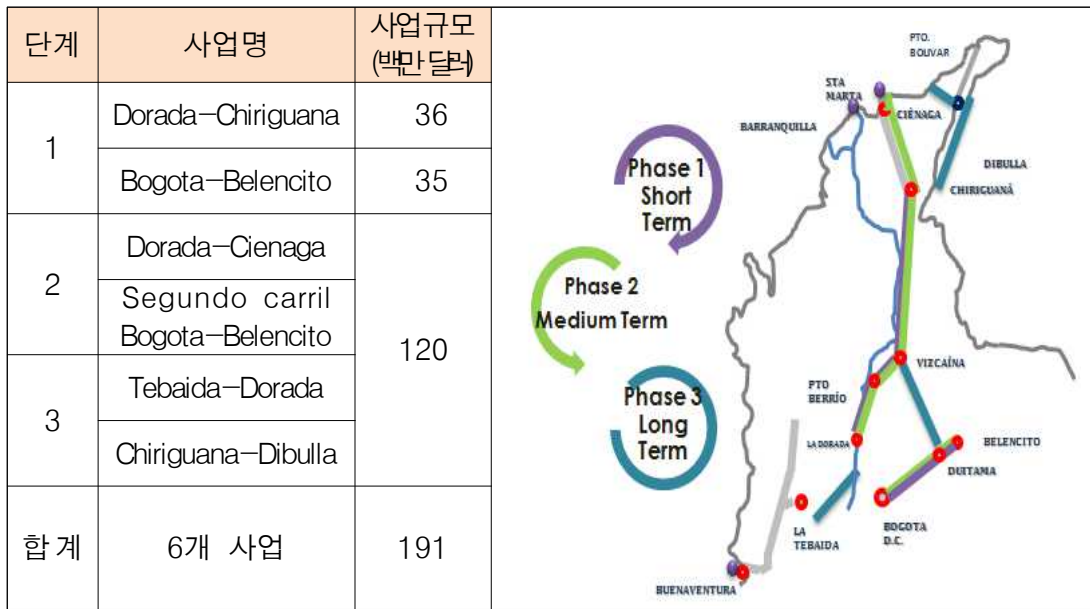
그림 6. 주요 추진 예정 도로사업 (4G 제3차)



자료: 프로콜롬비아(Procolombai), 콜롬비아 인프라청(ANI).

- (철도사업) 콜롬비아 정부는 3단계에 걸쳐 철도 인프라 개선 계획을 가지고 있는바, 1단계 사업은 입찰 완료된 상태이며, 2·3단계 사업은 1단계 종료 후 추진 예정임.
- 1단계는 2개 사업, 사업규모 71백만 달러, 2·3단계 사업은 4개 사업, 사업규모 120백만 달러 수준임.

그림 7. 철도사업 현황 및 계획



자료: 콜롬비아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

□ (공항사업) 콜롬비아 정부는 2018년까지 9억 달러를 투자하여 전국 47개 공항에 대한 확장 및 현대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음.

- 콜롬비아 공항 이용객 수가 2005년 12백만 명에서 2014년 31백만 명으로 지난 10년 간 3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공항 확장 및 현대화가 필요함.
- 2개 사업(Armenia 및 Neiva공항, 사업규모 78백만 달러)은 입찰이 진행중이고, 기존 엘도라도공항 (178백만 달러) 및 Rafael Nunez Cartagena공항 (112백만 달러) 사업은 사업타당성조사(F/S)가 진행중임.
- (엘도라도 공항사업 II) 총 사업비 10억 달러 규모로, 기존 엘도라도 공항에서 15km 떨어진 위치에 보고타 제2의 공항을 건설하는 사업(El Dorado Airport II)이며, 2018년 입찰 예정임.
  - (사업내용) 총길이 4,000m 활주로 3개 및 여객터미널 등을 포함하며, 연간 7.6백만 명의 승객과 17.2만 대의 항공기가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기대됨.
  - (추진경과) 2016년 9월 F/S 및 설계를 위한 컨설턴트 입찰 절차가 시작 되었으며, 현재 F/S 및 설계작업이 진행중임.
  - (향후계획) PPP 방식으로 2018년 공항 건설 입찰이 실시될 예정이며, 2021년 운영 계획임.



그림 8. El Dorado Airport II



자료: Procolombia.

- (항구사업) 주요 추진 예정사업으로는 다리엔 국제항(Darien International Port, 사업규모 10억 달러), 피시시항(Pisipi Port, 386백만 달러), 바랑끼자항(Deep Water Port in Barranquilla, 876백만 달러) 등이 있음.
  - (보고타 메트로사업) 총 사업비 13.7조 페소 (45억 달러) 규모로, 콜롬비아가 추진중인 대표 인프라 사업이며, 2017년 10월 입찰 예정임.
    - (사업내용) 총길이 31km, 레일, 열차, 역사 등을 포함하며, 2022년 운영 계획임. 총 사업비 13.7조 페소 중 9.6조 페소(70%)는 중앙정부가, 나머지 4.1페소(30%)는 보고타시가 부담 예정임.
    - (추진경과) 신임 보고타 시장(Mr. Penalosa, 2016년 1월 취임)의 선거 공약에 따라 지상철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2016년 11월 설계 변경·사업 감리 입찰을 실시하여 프랑스 기업인 Systra社가 선정됨.
    - (향후계획) Systra社는 설계 변경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17년 8월까지 재설계를 완료하고, 2017년 10월 선로 공사 입찰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됨.
    - 보고타 메트로 사업은 100% 재정사업으로 진행될 계획이나, 유럽계 건설사에 따르면 보고타 시정부는 전동차, 신호체계, 운영 등을 묶어 PPP 사업으로 변경을 검토중\*임.
- \* 국가개발금융공사(FDN)도 보고타 시정부가 PPP 사업으로 전환을 검토중 이라고 답변함.

## 2. 석유산업

### (1) 현황 및 전망

- (매장량) 2015년말 기준 원유 매장량은 23억 배럴로, 베네수엘라(3,009억 배럴), 브라질(130억 배럴), 멕시코(108억 배럴), 에콰도르(80억 배럴), 아르헨티나(24억 배럴)에 이어 중남미 제6위, 세계 제34위 규모임.
- 추가적인 석유 탐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매장량은 향후 7년간 공급 가능한 수준으로 분석됨.
- 콜롬비아의 유전은 안데스 산지 및 동부 아마존 정글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중부내륙 메타 주의 야누스 분지에는 콜롬비아 최대 유전인 루비알레스(Rubiales)가 위치해 있음.
- (생산량) 2015년말 기준 일일 원유 생산량은 1,008천 배럴로, 베네수엘라(2,626천 배럴), 멕시코(2,588천 배럴), 브라질(2,527천 배럴)에 이어 중남미 제4위, 세계 제19위 규모임.
- 국영석유기업인 에코페트롤(Ecopetrol)이 전체 원유의 60% 이상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외 다수의 외국계 기업이 생산에 참여하고 있음.
- 콜롬비아는 세계 제14위, 중남미 제3위 원유 수출국(736천 배럴/일)이나, 디젤유 등 일부 정제유는 수입하고 있음.
- 콜롬비아 내 정유시설은 총 5개(에코페트롤 지분 100%)이며, 최대 정유 시설은 레피카르(Reficar)와 바란까베르메자(Brrancabermeja)로 정제의 약 98%를 담당함.

표 15. 원유 매장량 및 생산량

구 분	2014	2015	2016 <sup>e</sup>	2017 <sup>f</sup>	2018 <sup>f</sup>
매장량 (백만 배럴)	2,445.0	2,308.0	-	-	-
생산량 (천 배럴/일)	990.4	1,007.6	911.4	874.6	859.9
정유시설용량 (천 배럴/일)	335.9	420.9	420.9	420.9	420.9
원유 가격 (Brent, USD/배럴)	98.9	52.4	45.1	57.0	60.0

자료: British Petroleum,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표 16. 콜롬비아 석유산업에 대한 SWOT 분석

강점 (Strengths)	약점 (Weaknes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안 개선, 투자자 친화적인 사업환경 조성 및 거시경제 안정</li> <li>○ 석유부문 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 지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네수엘라산 저가 연료 불법수입으로 국산 연료에 대한 수요부진</li> <li>○ 자본투자 축소 및 원유 생산량 감소 지속</li> </ul>
기회 (Opportunities)	위협 (Threa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안지역 등에 대한 광범위한 탐사 및 개발 진행으로 추가 자원 확보 가능성</li> <li>○ 국내 정제능력 향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가약세로 인한 개발투자 지연 및 반군의 시설물 테러 지속 가능성</li> <li>○ 멕시코 시장자유화와 브라질 원유생산 증대에 따른 외국인 투자동력 약화</li> </ul>

자료: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 **(산업의존도)** 콜롬비아는 석유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2016년 기준 원유 및 석유제품이 수출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FDI의 약 16%가 석유부문에 유입됨.

-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 비중은 2013년 및 2014년에는 50%를 상회하였으며, 2016년에는 저유가에 따라 수출비중이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콜롬비아의 제1대 수출 품목임.
- 석유부문에 대한 FDI 금액은 2012년 5,471백만 달러(FDI 비중 36%)로 최대를 기록한 이후 저유가로 인한 투자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16년에는 절반 수준인 2,172백만 달러(16%)로 급감함.
- 석유산업은 외국인투자에 힘입어 2008~2013년간 비약적으로 성장하였으나, 이후 유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최근 수년간 성장이 정체됨.
- BMI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수년간 저유가 지속에 따른 에코페트롤의 투자 축소\*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원유 생산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 에코페트롤은 2015년~2016년 간 투자규모를 2014년 대비 약 80% 축소함.

□ **(산업활성화 정책)**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계 기업이 100% 지분으로 탐사 및 생산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세금감면, 로얄티 할인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 2015년 11월에는 해상유전 개발을 통한 생산량 증대를 위해 카리브해 연안 시추기업에 대해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함.
- 한편, 에코페트롤은 2015년 5월 '전략 2020(Estrategia al 2020)'을 수립하였으며, 2016년 6월에는 130억 달러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함.
  - '전략 2020'은 재정건전성 확보와 탐사 및 생산량 증대를 주요 골자로 하며, 2020년까지 일일 평균 원유생산량 87만 배럴 달성, 확인매장량 17억 배럴 추가 확보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2) 기업 진출현황

- (타국기업) 캐나다계 퍼시픽 이앤피 (Pacific Exploration & Production)와 미국계 옥시덴탈(Occidental)이 전통적인 외국계 주요기업이며, 아시아계로는 중국과 인도의 합작회사인 만사로바르 (Mansarovar\*)가 대표적임.

\* 중국 국영석유화학기업인 Sinopec과 인도 국영석유화학기업인 ONGC의 자회사 ONGC-Videsh와의 합작회사로 2006년 콜롬비아에 설립됨.

- Pacific E&P는 가장 중요한 외국계 생산자로, 콜롬비아 내 35개 블록 지분과 Petrominerales, Meta Petroleum, Pacific Stratus Energy 등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음.

**표 17. 일일 생산량 기준 상위 8개 외국계기업 현황 (2016년 상반기)**

기업명	국 적	일일 생산량(배럴)	점유율 (%)
Pacific Stratus	캐나다	87,305	9.4
Occidental	미국	56,202	6.1
Mansarovar	중국, 인도	37,183	4.0
Geopark	아르헨티나	31,321	3.4
Perenco	프랑스	22,886	2.5
Gran Tierra Energy	캐나다	21,183	2.3
CEPSA	스페인	20,737	2.2
Parex Resources Inc.	캐나다	14,101	1.5

자료: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 (우리기업) 콜롬비아 유전탐사 및 개발에 참여한 우리기업은 한국석유공사, SK이노베이션, LG상사 등이며, 현대오일뱅크는 2015년 에코페트롤과 원유 도입을 위한 MOU를 체결함.
- LG 상사가 2012년 아르헨티나 기업인 Geopark 지분 20%를 인수하여 까사나레州에서 석유탐사를 시작하였고, 현재 일산 5만 배럴 광구를 확보하여 시추중임.
- 한국석유공사, SK이노베이션 등은 광구 탐사권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철수했거나 일부 지분만 보유하고 있는 등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파악됨.

### 3. 광물 산업

#### (1) 현황 및 전망

- (매장량 및 생산량) 콜롬비아는 중남미 주요 광업국가로, 석탄, 우라늄, 금, 은, 백금, 에메랄드, 구리, 아연, 철광석, 니켈, 인광석 등 다양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대부분의 광물자원이 안데스 산맥과 동부 내륙 지역 등을 중심으로 매장되어 있으며, 전체 국토 중 광물탐사가 진행된 지역이 20%에 불과해 개발 잠재력이 높음.
- 주요 생산광물은 석탄(생산량 중남미 1위), 니켈(4위), 금(6위), 에메랄드 (세계 생산량의 95%) 등이며, 석탄이 전체 광산업 GDP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음.

표 18. 주요 광물 생산량 및 매장량 현황

단위: 톤, 온스, %

구 분	단 위	매장량				생산량		
		콜롬비아	세 계	점유율	순위	2014	2015	2016 <sup>e</sup>
석탄	백만	6,746	891,531	0.8	13	88.60	85.50	87.21
금	백만	-	57,000	-	-	1.83	1.88	1.96
니켈	천	1,100	78,000	1.4	13	81	73	71

자료: British Petroleum, U.S. Geological Survey,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표 19. 콜롬비아 광산업에 대한 SWOT 분석

강점 (Strengths)	약점 (Weaknes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풍부한 광물자원과 사업환경 개선</li> <li>○ 광물인허가 행정 절차 신속화 추진 등 정부의 광산업 개발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탄가격 변동에 따른 수익성 부담</li> <li>○ 치안불안 지속시 신규 투자 지연 야기 가능성</li> </ul>
기회 (Opportunities)	위협 (Threa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ARC와의 평화협상 체결로 광산업에 대한 장기 전망 개선</li> <li>○ 환경규제 강화로 미국내 생산비용 증가, 파나마 운하 확장으로 운송비용 절감 가능</li> <li>○ 폐소화 약제로 투입비용은 절감되는 반면 수출광물의 달러화 가치는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산노동자 파업에 따른 광산운영 부담 가중 및 생산 저하</li> <li>○ 외국 채광회사들의 광업권 등 관련 소송제기와 이로 인한 투자 지연</li> </ul>

자료: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 (경제기여도) 광업이 콜롬비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내외 수준이나, 수출 비중, 외국인투자 유치 및 부동산, 금융, 제조업 등 연관 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 감안시 국가 기반산업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광물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내외 수준이며, 2010년~2015년 광업 부문 FDI 유입액은 전체의 16% 수준임.

- 특히 석탄은 광물 수출의 70%, 광물 투자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광업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2013년 2,977백만 달러로 최대를 기록하였으며, 이후 국제 광물가격 하락 등에 따른 투자 감소로 2015년에는 533백만 달러로 감소\*함.

\* 2013년 2,977백만 달러 → 2014년 1,582백만 달러 → 2015년 533백만 달러

□ (산업성장률) 콜롬비아의 광업은 2012~2016년간 연평균 3.2%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7년 224억 달러에서 2020년 255억 달러로 연평균 4.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주요 광물 생산량 전망

- (석탄)\* 2017년 90.7백만 톤 → 2020년 105백만 톤, 연평균 4.8% 증가

\* 콜롬비아 석탄은 유황성분이 1% 미만인 저공해성 석탄으로, 연소시 연기가 적게 나고 휘발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며 대부분 연료나 제련용으로 사용되는 무연탄과 역청탄임. 주요 개발지역은 Cesar, La Guajira 등임. (전체 생산의 약 90%, 2014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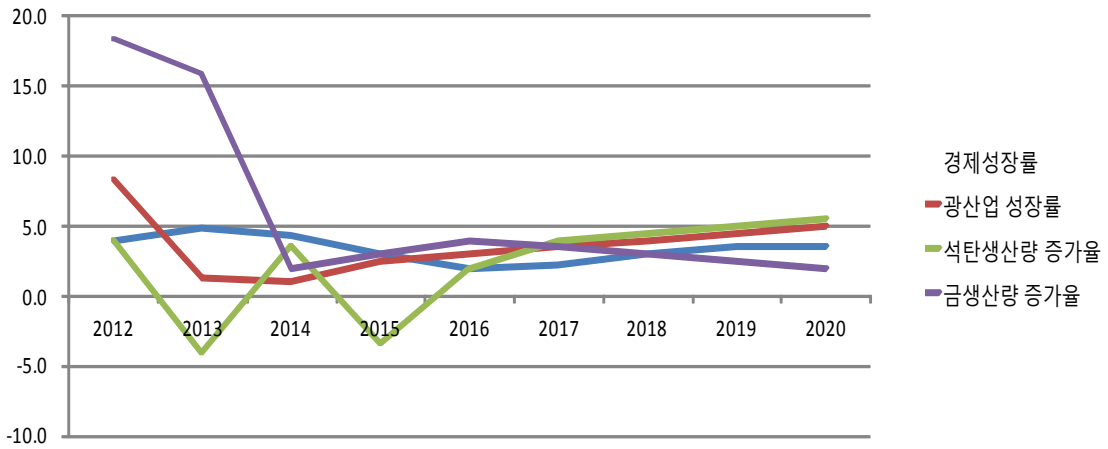
- (니켈)\* 2017년 70.0천 톤 → 2020년 70.4천 톤

\* 콜롬비아산 니켈 가격의 경쟁력 저하로 생산 정체가 전망되며, 주요 광산은 Cerra Matoso 등임.

- (금) 2017년 2백만 톤 → 2020년 2.2백만 톤, 연평균 2.8% 증가

\* 주요 개발지역: Antioquia, Chococo, Narino, Cauca 등 (전체 생산의 약 86%, 2014 기준)

그림 9. 콜롬비아 경제, 광산업 성장률 및 주요 광물 생산량 증가율 전망



구 분	2014	2015	2016 <sup>e</sup>	2017 <sup>f</sup>	2018 <sup>f</sup>	2019 <sup>f</sup>	2020 <sup>f</sup>
석탄(USD/ton)	70.9	58.9	65.7	65.0	63.0	63.0	65.0
니켈(USD/ton)	16,951	11,877	9,647	10,500	11,500	12,500	13,000
금(USD/oz)	1,265.6	1,160.0	1,248.0	1,300.0	1,400.0	1,475.0	1,475.0

자료: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 석탄 등 전통 주력 광물이 광산업을 견인하는 가운데, 최근 콜롬비아 정부는 구리, 콜탄 (Coltan)\* 등에 대한 개발 잠재성을 언급함.

\*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사용되는 주요 금속물질로 콜롬비아지질청(SGC)에 따르면, 동부의 Vichada주, Guainia주, Vapurpe주 등을 중심으로 매장된 것으로 추정됨.

- 구리 추정 매장량은 최소 4만 톤으로, 기존 생산국을 대체할 신규 공급지로의 부상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으며, 희귀 광물인 콜탄에 대한 생산 본격화를 준비 중으로 매장량은 약 10억 톤 이상인 것으로 추정됨.

□ (산업활성화 정책) 콜롬비아 정부는 광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2001년 개정된 광업법(Law 685)에 따라 개발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적극 장려하고 있음.

- 광업법에 따르면, 광업권은 정부와의 양허계약을 통해 부여되며, 외국인도 내국민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보유함. 양허계약은 탐사, 건설, 생산의 3단계로 나뉘지며, 허가지역과 광물이 명시됨.
- 정부는 2012년 금, 백금, 구리, 인산염, 포타슘, 마그네슘, 연료탄, 원료탄, 우라늄, 철, 콜탄 등 11종류의 국가전략 광물을 선정함.
- 광산업은 광물에너지부(MINMINAS)에서 관장하며, 산하에 국가광업협회(ANM, 자원관리), 광물에너지기획청(UPME, 기획), 지질청(SGC, 지질정보) 등을 두고 있음.

## (2) 기업 진출현황

□ (타국기업) 콜롬비아의 광산업 개발에는 미국, 캐나다, 유럽, 중남미, 호주 등 다국적 기업들이 석탄, 니켈, 금 등을 중심으로 진출해 있으며, 상대적으로 아시아 국가의 활동은 부진함.

- 주요 석탄 생산기업은 세레혼(Cerrejon), 미국계 드러몬드(Drummond), 및 스위스계 프로데코 (Prodeco) 등이며, 2015년 기준 이들 기업의 생산량이 전체의 92% 이상을 차지함.
- 세레혼은 콜롬비아 최대 광산 운영회사로, 호주계 BHP Billiton, 영국계 Anglo America, 스위스계 Glencore의 합작회사(지분율 각 33.3%)이며, 2015년 기준 생산량은 33.3백만 톤(전체의 39%)임.
- 최대 니켈 광산인 세로 마토소(Cerro Matoso)는 호주계 South 32 및 BHP Billiton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금 광산 운영에서는 캐나다계 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

표 21. 주요 진출기업 현황 (2015)

국 가	광물	주요 기업	
캐 나 다	금	· Gran Colombia Gold	· Continental Gold Ltd.
		· Red Eagle Mining Corp.	· Eco Oro Minerals
		· B2gold	· Angel Gold Corp.
		· Batero Gold Corp.	· Orosur Mining
		· Antioquia Gold	· Newrange Gold Corp.
	구 리	· Atico Mining	
	우 라 늑	· U308 Corp.	
호 주	석 탄	· BHP Billinton	
	금	· Pacifico Minerals	
	니 켈	· South 32	· BHP Billinton
U A E	금	· Mubadala	
미 국	석 탄	· Drummond Company Inc.	· Murray Energy Corp.
	에메랄드	· Mineria Texas S.A.	
멕시코	비금속	· CEMEX	
영 국	석 탄	· Anglo American	
	에메랄드	· Gemfields	
남아공	금	· AngloGold Ashanti	
스위스	비금속	· Holcim	
	석 탄	· Glencore, Prodeco (Glencore의 자회사)	
터 키	석 탄	· YILDIRIM Group	

자료: Colombia National Mineral Agency.

- (우리기업) 우리나라는 콜롬비아산 석탄 수입은 하고 있으나, 광물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실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우리나라의 對콜롬비아 석탄 수입량은 2009년 629톤(182천 달러)에서 2016년 2.5백만 톤(192백만 달러)으로 크게 증가함.
- 석탄 수입량은 2010년 1.7백만 톤, 2012년 1.9백만 톤을 기록하였으나, 이외에는 32만 톤 이하를 기록하는 등 연도별로 등락을 보이고 있음.

## IV. 우리기업의 진출방안

### □ PPP 방식을 통한 진출 전략 수립

- **(진출전략 전환)** 콜롬비아는 재정문제 등으로 최근 PPP 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PPP 방식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단순한 EPC 사업 수주 방식에서 벗어나 PPP 방식으로 진출전략 전환이 필요함.
  - 특히 민간 부문이 인프라 개발 사업을 발굴하여 정부 앞 제시하고, 정부는 해당 사업을 평가하고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민간제안 PPP 사업방식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PPP 담당부처 네트워크 확대)** PPP 유관부처와의 긴밀한 유대 관계 구축 및 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해 PPP 유관부처에 우리나라 자문관 또는 상무관 등 파견 추진과 PPP 유관부처와 공동으로 PPP 설명회를 개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민간제안 PPP 사업 참여)** 최초 제안 기업과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사업 참여 기회를 획득하고, 메트로, 공항, 경전철, 하수처리, 병원 등 우리기업 진출 유망분야를 대상으로 KSP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민간제안 PPP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민간제안 PPP 사업 발굴을 위해서는 우리기업 진출 유망산업에 대해 KSP 등 예비타당성 조사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현지·외국기업 파트너십 구축)** 효과적 위험관리를 위해 콜롬비아 법규, 제도, 시장 관행에 밝은 현지기업과 스페인 등 콜롬비아 진출 경험이 풍부한 외국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함.
  - 콜롬비아 정부는 2012년 PPP법 개정을 통해 사업위험의 상당부분을 민간으로 이전하였는바, 효과적인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과 세부사업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중남미 지역개발은행 활용 필요

- 인프라 분야 등을 중심으로 중남미개발은행 (CAF) 및 미주개발은행 (IDB)의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
- CAF 대출 및 투자포트폴리오 (2015년 말 기준) 208억 달러 중 인프라 분야가 62.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CAF는 2015년 총 123억 달러(152개 사업)를 승인하였고, 이중 콜롬비아는 24억 달러(20%)로 제1위를 차지하였음. 콜롬비아는 CAF 창설 회원국이며 지분율도 18%에 달해 CAF의 주요 지원대상국임.

표 22. CAF의 승인 및 집행현황 (2015년)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콜롬비아	페루	브라질	에과도르	기타	합계
승인금액	2,420	2,366	1,234	1,014	5,221	12,255
집행금액	1,221	545	677	754	2,748	5,945

자료: 중남미개발은행(CAF).

- IDB는 2016년 총 113억 달러를 승인하였고, 이중 콜롬비아는 14억 달러 (12%)로 멕시코, 아르헨티나에 이어 제3위를 차지하였음. 또한 총 승인액 중 인프라 및 환경 분야가 40% 수준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23. IDB의 승인 및 집행현황 (2016년)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멕시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브라질	기타	합계
승인금액	2,062	1,549	1,403	1,335	4,997	11,346
집행금액	1,376	1,143	1,140	1,493	4,917	10,069

자료: 미주개발은행(IDB).

- CAF, IDB의 콜롬비아 사무소(보고타시 소재)와의 교류 강화를 통해 이들 기관의 추진사업 정보를 수집하고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함.

## □ 정부 수주지원단 활동에 우리기업의 적극 참여 필요

- 우리정부(국토교통부 등)의 수주지원단 파견시 우리기업들이 적극 참가하여 현지 정부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정보 획득 등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2017년 3월 국토교통부 주관 중남미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이 파나마, 페루, 볼리비아, 아르헨티나를 방문하여 해당 정부부처들과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 협력방안 논의 및 MOU 체결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수주지원 활동을 지원한 바 있음.
- 콜롬비아는 향후 대부분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PPP 방식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러한 PPP 사업에 우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정부와 기업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2016년 3월 한국석유관리원은 콜롬비아 광물에너지부(MINMINAS)와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관리체계 구축 등에 대한 기술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바, 정유, 유통 등에서 우리기업의 콜롬비아 시장진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 EDCF 및 한국수출입은행 (수은) 전대금융제도 적극 활용 검토

- (ECDF) 대외경제협력기금(ECDF)은 IDB와의 협조융자 방식 등으로 콜롬비아의 인프라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바, 사업 재원 조달 측면에서 EDCF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우리 정부는 IDB와 2017년 4월 EDCF-IDB 협조융자 한도를 3억 달러로 증액하기로 합의함.
- (전대금융) 현재 수은-콜롬비아은행 간 전대금융 크레딧라인은 없으나, 2017년 콜롬비아 일부은행과 전대금융 계약 체결이 추진될 예정이므로, 콜롬비아 시장 진출을 위해 전대금융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타국 활용사례) 수은은 2016년 12월 전대금융 방식으로 포스코건설이 수주한 파나마 발전사업에 대해 1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금융(PF)을 제공한 바 있음.

## < 참 고 문 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민관협력사업(PPP)을 활용한 중남미 인프라·플랜트 시장 진출 확대방안』 2016. 12.

코트라, 『중남미지역 진출전략』 2016. 12.

한국수출입은행, 『2017년 건설산업 위기와 기회요인 점검』 2017. 4.

\_\_\_\_\_, 『콜롬비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7. 2.

\_\_\_\_\_, 『남미 4개국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2015. 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콜롬비아 광물자원 부존현황』 2014

BMI, Colombia Infrastructure Report, 2017. 1.

CAF, Annual Report, 2016. 8.

DNP, Plan Nacional de Desarrollo, 2015

ECLAC,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2016

EIU, Colombia Country Report, 2017. 2.

IDB, Annual Report, 2017. 4.

Procolombia, Investment Environment and Business Opportunities in Colombia, 2017

외교부 중남미 자원·인프라 협력센터 (<http://energia.mofa.go.kr>)

주콜롬비아 한국대사관 (<http://col.mofa.go.kr>)

코트라 (<http://www.kotra.or.kr>)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res.net>)

한·중남미협회 (<http://www.latinamerica.or.kr>)

Banco Central de Colombia (<http://www.banrep.gov.co>)

BMI (<http://bmo.bmiresearch.com>)

CIA (<https://www.cia.gov>)

Ecopetrol (<http://www.ecopetrol.com.co>)

EIA (<https://www.eia.gov>)

Ministério de minas y energía (<http://minminas.gov.co>)

National Mining Agency (<http://www.anm.gov.co>)

Oilpro (<http://oilpro.com>)

PR Newswire (<http://www.prnewswire.com>)

Unidad de Planeación Minero Energética (<http://www.upme.gov.co>)

U.S Geology Survey (<https://www.usgs.gov>)

매일경제 (<http://news.mk.co.kr>)

이투데이 (<http://www.etoday.co.kr>)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